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INY PRETTY THINGS
가제 : 발레리나들
저자 : Sona Charaipotra, Dhonielle Clayton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5년 5월 26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넷플릭스 TV 시리즈로 제작 예정**
*** 영화 '블랙 스완'과 넷플릭스 TV 시리즈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를 합쳐 놓은 것 같은 이야기**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The Belles』의 저자 도니엘 클레이튼과 유망한 작가 소나 차라이포트라가 공동 집필한, 엘리트 발레 학교에 모인 소녀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

지지, 베트, 준은 유명 댄스 아카데미의 프리마가 되기에 충분한 실력들을 가진 쟁쟁한 발레리나들이다. 캘리포니아 출신 흑인이자,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진 신입생인 지지의 꿈은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추는 것 하나뿐이었다. 한편 스타 발레리나 아델을 언니로 둔 뉴요커 소녀 베트는 백인 특권층 집안 출신으로, 자신이 이 학교의 여왕이며 프리마의 자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언니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위기를 맞게 될 터였다. 꼼꼼한 연구 정신으로 춤을 추는 완벽주의자인 준 역시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 게다가 준은 이번엔 반드시 무대의 주연을 맡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손에 꽉 쥐고 있는 어머니가 준의 꿈을 끝장낼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캐시'라는 또 다른 소녀와 각 소녀들의 독백으로 진행 되는 이 소설 속에서 과연 누가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명문 댄스 아카데미에 갓 입학 한 젊고 재능 있는 발레리나 캐시 루카스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캐시는 이 학교에서 만약에 정상에 오른다고 해도 그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캐시는 뛰어난 발레실력과 학교의 두 수퍼스타 발레리노 중 한 명인 헨리의 여자친구로, 학교 학생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또 다른 수퍼스타 발레리노이자 헨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녀의 무대 파트너 윌과 함께 춤을 추던 도중 그가 그녀를 지탱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캐시 루카스는 이 학교에서 사라져버렸고 헨리는 영원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1년 후 다른 세 소녀들의 이야기가 시작 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 되자, 이 발레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공연 호두 까기 인형의 오디션이 열렸

고 주인공 세 사람 모두 이 오디션에 참가했다. 베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최고의 파트너이며, 학교 이사장 아들인 알렉과 학교에서 열린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 오디션 공연을 마친 후 환희에 젖어 있었다. 또한 베트는 오늘 이 오디션에서 마침내 언니 아델과 마찬가지로 아델의 스승이었던 미스터 K의 인정을 받는데 성공했다며 자부했다. 같은 시간, 지지 역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실력을 가진 미스터 K의 애제자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준은 미스터 K 의 태도를 꼼꼼히 분석하며 누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될 것인지 점치고 있었고 당연히 베트가 호두까기 인형의 프리마 역할인 슈가 플럼 페어리가 되고 알렉은 호두까기 인형 왕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스터 K는 모두의 예상과 전통적 관습을 깨고, 신입생인데다 흑인이기까지 한 지지에게 프리마 역할을 맡겼다. 지지는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결과가 발표되자 다이어트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지쳐 있던 여학생들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모든 여학생들이 지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지지의 지옥 같은 학교 생활 역시 시작 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지를 가장 증오하는 것은 베트였는데 지지에게 프리마 역할까지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알렉 마저 베트가 아닌 지지를 연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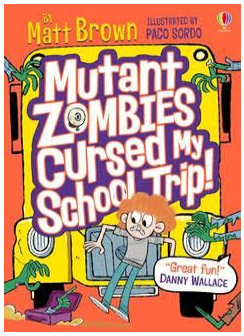
어느 날 지지는 한 여학생이 건네 준 한 박스를 받았고 그것이 남자친구 알렉의 깜짝 선물인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바퀴벌레와 경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누군가가 지지의 발레 슈즈 안에 유리 조각들을 넣어 두는 바람에 발이 피범벅이 되기도 했고 지지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나비들을 다 죽여 벽에 핀으로 꽂아두는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이 베트는 알렉 대신, 자신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진 헨리와 불길한 사랑에 빠지고 지지는 알렉과 베트가 예전에 찍은 민감한 사진 몇 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베트는 언니 아델과 미스터 K가 사제 관계 이상이었으며 그 관계에는 어느 정도 위력에 의한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스터 K가 자신에게도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자 혼란에 빠졌다.

얼마 후, 지지는 베트와 알렉, 헨리, 준 및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누군가가 뒤에서 미는 바람에 택시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과연 누가 지지를 민 것일까? 모두가 베트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베트는 끝내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다. 지지는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출 수 있을까? 인종 문제와 십대 청소년들의 내적 갈등, 살벌한 발레리나들의 세계를 그린 소설로 다음 시리즈가 기다려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소나 차라이포트라, 도니엘 클레이턴 (Sona Charaipotra와 Dhonielle Clayton)은 New School의 유명한 Writing for Children MFA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서로를 알게 되었다. 소나는 New York Times, People, Parade, Cosmopolitan 및 기타 주요 미디어에 글을 썼던 기자이다. 도니엘은 할렘에 있는 한 중학교의 사서이며, 한 험악한 발레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두 사람은 또한 함께 다양한 부티크 서적 포장 회사 인 CAKE Literary를 공동 설립했다

제목 : MUTANT ZOMBIES CURSED MY SCHOOL TRIP!
가제 : 수학여행과 좀비 군대
저자 : Matt Brown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모험/유머



*** "어린이 독자들은 이안과 그의 상상의 친구인 레밍턴 퓨리어스 3 세가 등장하는 으스스한 수학 여행에 관한 이 유쾌하고도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결코 손에서 내려 놓을 수 없을 것이다." -i 프레스 (더 인디펜던트)**

곧 열한 살이 될 소년 이안 랜슨은 곧 떠나게 될 수학 여행에 대해 걱정 중이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안에게는 함께 여행을 즐길 친구가 없었고 둘째, 엄마는 겨우 이틀 동안의 수학 여행을 위해 무려 열 벌의 바지를 챙겨 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다가올 일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들이었다. 왜냐하면 이안과 이안의 학교 친구들이 수학여행 장소인 저택 '리바이어던 홀'에 도착하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저택은 역사적인 장소로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가득한 소름 끼치는 곳이었다. 또한 그 집에는 좀비처럼 끔찍한 몰골을 한 형체도 있었고 이안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소름 끼치는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와이파이도 없는데다 휴대폰 사용까지 금지되는 바람에 이 곳은 완전히 고립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 저택에서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기괴하면서도 재치 있는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유쾌한 소설이다.

이안은 한번도 제대로 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는 소년이었다. 아빠의 직업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새도 없이 늘 이사를 다녔고 이번엔 새 학교에 온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또 이사를 가게 되었다. 때문에 그의 유일한 친구는 다른 그 누구에도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존재, 바로 녹색 머리카락에 흰색 양복을 입고 다니거나 금빛 우주복을 입고 나타나는 상상 속의 친구 '레밍턴 퓨리어스'뿐이었다. 이안은 만약 자신이 진짜 친구를 사귄다면 부모님이 이사 결심을 무를 것이며, 이 수학 여행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이안과 이안의 학급 친구들은 리바이어던 홀에 도착했고 저택 관리인인 그림블씨를 만났다. 이안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두 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과 그가 끈적끈적한 피부에 너무나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챘다. 또한 이안을 포함한 다른 아이들은 그곳 직원인 키스의 녹색과 회색이 섞인 피부가 축 늘어져 바람에 휘날리는 끔찍한 모습까지 보았다. 하지만 그림블은 저택 체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모두들 분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곳에는 건물 바닥 중간 중간에 더러운 물 웅덩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저택에서 과학 실험 목적으로 기른 다는 쥐까지 빠져 죽어 있었다. 또한 그림블씨는 저녁 식사로는 1487 년의 대 유행했던 손가락 질병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수프에 플라스틱 모형 손가락을 넣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 하지만 그 나중에 다른 아이들 두 명이 수프 속에서 발견한 손가락들은 초록색과 회색이 섞인 진짜 사람 손가락처럼 보였다. 게다가 저녁 식사 이후, 이안은 방문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하룬과 비노가 함께 사용하는 방의 욕실 욕조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날 밤 이안은 평소에 친해 지고 싶었던 두 친구 하룬과 비노와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이안은 저택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카우보이 복장으로 변신한 레밍턴 퓨리어스와 저택 곳곳을 살펴보던 중 자신을 발견한 그림블과 엉클어진 머리에 빛나는 녹색 부적을 목에 걸고 검은 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무섭게 생긴 여자, 저택 주인 거투르드와 마주쳤다. 그림블씨의 손에 이끌려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었던 이안은 다음 날, 하룬과 이안에게 어젯밤 일어난 일과 그림블씨와 거트루드가 어두운 마법을 이용해 주말 전 세상을 손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안이 몽유병에 걸렸거나 꿈을 꾼 것이라 생각했다.

이안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거투르드를 다시 만났고 그녀는 이곳에 함께 온 모든 선생님들과 두 학생 마저 병에 걸려 저택 의무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이안은 직원들이 사람의 팔과 다리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모습까지 발견했다.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이안은 레밍턴과 함께 그림블씨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용 머리 손잡이가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그림블씨가 말한 고장 난 화장실이 아니라 쓴지 백 년도 훨씬 넘은 거트루드의 일기장과 마녀, 마법에 관한 책들이 있는 도서관이었다. 이안은 거트루드가 백마흔을 넘은 사악한 마녀라는 것과 그림블씨는 거트루드가 자신의 귀지로 만든 괴이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안은 거트루드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좀비로 만 '좀비 군대'를 만들어 온 세상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 저택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목표를 위한 희생자가 되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안은 도서관에서 도망쳐 선생님의 전화기를 찾아내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그 사이 레밍턴은 저택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안에게 탈출을 제안했지만 이안은 친구들을 버리고 혼자 떠나지는 않기로 결심했다. 이안은 뇌를 빨아먹는 좀비들로부터 학교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진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좀비들과 싸우고 마침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알게 되는 으스스하면서도 유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맷 브라운 (Matt Brown)은 화학 (BSc) 및 생체 분자 과학 (MRes) 학위를 갖고 있다. 그는 Reed Elsevier와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과학 편집자 겸 작가로 활동했으며 비롯한 여러 과학 서적에 글을 기고 했다. 그는 또한 퀴즈 마스터, 과학 시리즈 방송을 진행자로 활동했다. 그는 『London Day and Night』(2015, Batsford)의 저자이며, 곧 나올 책으로는 『Everything You Know About London is Wrong and Everything You Know About England is Wrong』이 있다. 그는 Londonist.com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